

길을 걸으면 저절로 보이는 내 안쪽의 길들이여!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트레킹 동행기 <하>

#그들의 기도 "모두가 행복하길"

11월 12일, 우리나라 산골 마을의 초라한 오두막과 다들 것이 없는 불블레의 민가에서 아침을 먹었다. 해발 3200m의 고산이고 오늘은 해발 3800m 지점의 베이스캠프로 이동해야 한다. 때문에 소화가 잘되는 죽으로 아침을 해결해야 했다. 산소가 적은 고산에서는 위장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도 고소증을 유발하는 원인이었다.

베이스캠프로 가는 길은 민둥산이다. 우웅우웅 강풍이 부는 언덕길을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며 걸었다. 아래로는 거목들이 가득 들어찬 밀밭이고 다시 그 아래로 하얀 구름이 피어올랐다. 산 아래 마을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고 멀리 설산이 웅장하게 버티고 서 있다. 피어오르는 구름 때문인지 설산이 조용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내게로 한발 다가왔다 물러섰다 하는 그런 느낌.

봄에는 이 초지에 소가 가득 들어찬다고 한다. 지금은 아랫동네로 내려갔지만 봄이 되면 겨울하숙을 마치고 올라 온 소들이 풀을 뜯고 짙은 우유를 생산한다니 그 또한 장관일 것이다. 라리구라스 나무는 해발 3200m 지점부터 키가 작고 줄기도 가늘지만 총총한 군락을 이루고 있다. 고산에서는 깔팡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한다.

좁은 능선길과 깔팡 숲과 전나무들이 우거진 밀밭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종일을 걸었다. 바람을 등지고 혹은 맞바람으로 걷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길은 침묵으로 걸을 때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다. 피케이 봉 정상에서 기도를 하고 온다는 현지인들을 두 팀이나 만났다. 가이드를 통해 "기도 잘 하셨느냐"고 물으니 "매우 만족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무엇을 빌었느냐"는 질문에는 "모두가 행복하길 빌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들은 참으로 평화로워 보였다.

베이스캠프. 해발 3800m에 룻지가 있는데, 이미 유럽 사람들이 차지했다. 전화위복이었다. 룻지는 아니지만 어느 라마께서 지은 민가를 지키던 노파가 우리 일행을 위해 집을 비워주었고 따뜻한 차도 내왔다. 노파는 이 집을 지은 라마의 외할머니이고 외손자인 라마가 영봉스님에게 도움을 받은 일이라고 했다. 노파의 기억 끝에서 영봉스님도 그 라마를 떠올렸다. 인연은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한 송이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안개에 갇힌 정상 그러나 환한 마음

11월 13일, 지난밤 기어올라 비가 내리고 말았다. 그동안 최상의 날씨였는데 하필 정상으로 오르기 전날 비가 올게 무엇인가? 잠자리에 들기 전 보살님들은 능엄주를 외우고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을 했고 찬불기도 여러 곡 불렀다. 내일 아침 장엄한 일출을 볼 수 있길 비는 간절한 마음이 주력으로 노래로 흘렀다. 새벽 전에 비가 그치고 구름이 갠다면 그야말로

로 최상의 일출을 볼 것이고 계속 비가 오거나 구름이 걷히지 않으면 일출은 볼 수 없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잠에 들지 못하는 듯 침낭 속에서 바스락대는 소리가 이어졌다.

새벽 3시 회갑건 잠을 털고 일어나 풀인 승룡으로 속을 담히고 짐을 챙겼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강했고 꾸역꾸역 피어오르는 안개는 비 지지않은 물기를 흠뻑하고 있었다. 내복을 두벌씩 입고 장갑도 두 개씩 꼈다. 고글을 쓴 눈만 빼고 내놓고 모자와 목도리로 무장했지만 축축한 바람은 송곳처럼 몸을 파고 들었다. 피케이 제2봉과 제1봉으로 오르는 길은 어둠보다 바람이 더 두터웠다. 뒷사람이 비춰주는 헤드랜턴 빛에 의지해 앞사람의 발자국만 따라갔다. 두어 시간을 올라가 제2봉에 닿았다. 해발 4100m가 조금 안 되는 지점이다. 마니탑이 설치되어 있고 경전을 적은 깃발이 파락파락 소리를 내며 강풍에 나부끼고 있었다.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 막상 올라와서 보니 스틱과 장갑 그리고 배낭에 온통 얼음이 박혀있다. 안개가 얼어붙은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몸을 날려버릴 것 같은 바람과 하염없이 피어오르는 안개뿐이었다. 마니탑 앞에 서서 합장을 하고 엄열한 입으로 <반야심경>을 봉송했다. 뜨거운 눈물이 주무룩 흘렀다. 우리는 왜 이토록 깊은 어둠과 혹독한 바람을 뚫고 올라왔는가? 지난 며칠 히말라야의 산들을 걷고 또 걸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았는가? <반야심경> 한 편을 외는 동안 살아 온 날들이 모조리 비늘처럼 돌아나는 듯 했고 그 비늘들이 흔적도 없이 바람에 찢겨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는 동안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고 회사가 궁급했고 '선물은 필요 없으니 잘 다녀오라'던 친구들도 생각났다.

어둠은 다 걷히지 않았는데 아주 짧은 순간 손에 잡힐 듯 아침 해를 받아 빛나는 설산 풍경이 드러났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다. 카메라 렌즈에 묻은 물기를 닦는 동안이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 히말라야는 그 웅장한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았고 '맛배기'만 보여주었을 뿐이다.

해발 4100m의 피케이 제1봉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케이 봉 하산길은 라리구라스 숲이 우거져 있다.

다. 강한 바람과 하염없는 안개뿐이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오리무중(五里霧中)에서 무한한 기쁨이 솟구쳤다. 일출에 대한 집착을 던져버리고 나니 마음이 환해졌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꼬박 5일을 걸었다는 것이 즐거웠고 안개 너머 어딘가는 밝고 영롱한 곳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몸을 가볍게 했다. 산의 정상은 안개에 갇혔지만 거기 두발로 서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을 환하게 볼 수 있었다.

#하산의 가벼움, 그 길도 하나

11월 14~16일,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했다. 5일간 걸어 온 길을 4일 만에 돌아가야 했다. 13일 저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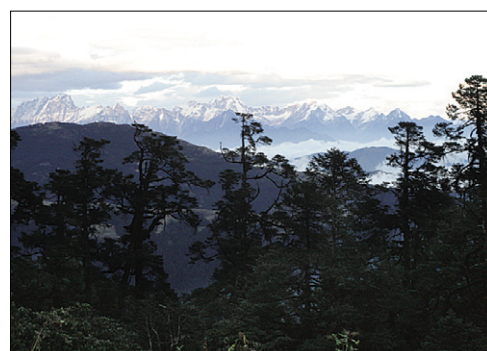
도착한 탁툰 마을은 참으로 온화한 기운이 흐르는 분지였다. 산골마을에 제법 큰 목장이 있고 룻지의 여주인이 걸러내는 막걸리 맛이 일품이었다. 정산을 올랐다는 기쁨과 이제 하산길이라는 흥분현이 새로운 힘으로 발길을 내딛게 했다. 캔자 마을로 내려오는 지루한 내리막길에서는 떨그렁떨그렁 워낭소리를 앞세운 당나귀들의 행렬을 만났고 주인 없는 검은 개 한 마리가 우리를 따라왔다.

여전히 길은 하나다. 사람이 가고 당나귀와 개가 함께 가는 길이었다. 동요속의 마을 같은 반달을 거쳐 대우랄리 언덕을 넘어 지리에 도착했을 때 일행은 모두 "한 이틀만 더 걸을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이

었다. "뱃살이 빠져 남편이 못 알아보면 어쩌지?" 법연지 보살님의 걱정에 웃음꽃이 피었다.

길에서 만나는 슬한 경계들이 내 안으로 스며들면서 나를 재구성하는 동안 나는 무수한 내 몸 안의 길들을 열었다. 내 안의 길, 내가 가지 못한 길조차도 내 안에 있음을 히말라야는 가르쳐 주었다. 9일 동안의 길 걷기는 바로 내 몸 속의 길을 여는 일이었다. 화두를 들 필요도 없이 그저 걷다보면 저절로 보이는 내 안쪽의 길들, 그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이다.

네팔-임연태 기자



불블레 지역의 숲과 멀리 보이는 설산.



피케이 봉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현지인들.



짐을 운반하는 당나귀들.



안개 속의 정상에 선 일행.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행복을 감염시킨 행복 바이러스

붓다의 행복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일해야 하고, 사회와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인생에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시한다.

행복한 삶이란 즐겁게 사는 것이 기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라.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달라진다』의 저자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 스님이 쓰고 『리터의 눈물』을 번역한 한성례 선생님이 번역한 행복 쓰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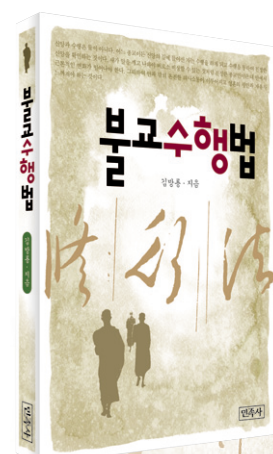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 지음 한성례 역 | 46면 양장 | 198쪽 | 289,500원

민중사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s.com

모든 종교의 알맹이는 신앙과 수행이다. 그 중에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의문이 생길 때 이 책은 수행법 전반에 대한 알기 쉽게 소개한 수행의 입문서이다!



김병통 지음 | 신국판 | 208쪽 | 219,500원

불교수행법

불교수행법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뽑아 소개
절 수행 · 간화선 · 염불 수행 · 위빠사나 수행 · 간경 수행
사경 수행 · 계율과 참회 수행 · 사물 수행 · 조사선 · 주력 수행

누구나 이 책으로 불교 수행에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